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사람책** : 오늘 오후 1:30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사람책>이 열립니다. 김대근 교우(마을 예술 창작소 ‘창고’ 대표)와 정현모 집사(KBS 책임프로듀서)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양식** : 감리교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을 신청 받습니다.  
2015년도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입교하기 원하는 이는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2일(토) 오후 2시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폐제찬양과 기도회에서 연주자로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피아노와 클래식 악기 등)

1부 예배	습 3:14-20 / 사 12:2-6 빌 4:4-7 / 눅 3:7-18	2부 예배	미가 5:2-5
-------	--	-------	----------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강지선 조경자 최옥자 황재모 김대근 이경준 오진희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이영아 김세진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40세 이하)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대림절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품이 되시며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 떠돌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의 밤에 그 불쌍한 부부를 맞아주었던 이름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외롭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품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그 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한 번의 연말을 맞는다는 자괴감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60:1,2 ..... 인도자
- ♣ 교 독 문 ..... 116. 구주 강림(2)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98. 예수님 오소서 ..... 다 함께
- ♣ 성경봉독 ..... I. 말3:1-4 빌1:3-11 눅3:1-6 ..... 박민선 선생  
 II. 요 1:19-28 ..... 송형운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 찬 양 ..... 구주가 오신다 ..... 찬양대
- 말 씬 ..... I. ..... 김기석 목사  
 II. 사나운 영의 숨소리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금분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강요한	원은이	곽상준	최경미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명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일량	최이은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정영우	김필순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재영	이현정	방문성	박혜경
배삼순	백묘현	성지현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유중희
이범석	류정욱	이용현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고숙이	권미정	김명순	이교영
김승현	김수진	김영아	김정훈	이진영	김현동	오유경	김혜진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순	박인혁	방민배	재경이	수정	송형운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안길상	이형숙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민범	공재자	이성범	권현미
이윤석	박안수	이치림	강상연	임주빈	김최홍	장경순	최원순	최홍자	최현성
최종원	하현철	최성애	허성호	진은혜	송현	추	황원	황	황
이오복	정복순	정재기	조병무	송양진	최	추	추	추	추

### 감사헌금

강금분	강순배	김경혜	김정린	김지현	김태정	김필순	김혜순	문홍일	이미혜
박재영	이현정	박준희	이기분	신진식	변혜정	안정준	오복순	이민형	조혜진
이승훈	장혜숙	정다운	홍혜선	무명11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오유경 무명5

### 생일감사헌금

김정현 이은아 김중수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눈 오는 날의 미사

하늘에 사는 흰옷 입은 하느님과  
그 아들의 순한 입김과  
내게는 아직도 느껴지다 말다 하는  
하느님의 혼까지 섞여서  
겨울 아침 한정 없이 눈이 되어 내린다

그 눈송이 받아 입술을 적신다  
가장 아름다운 모형의 물이  
오래 비어 있던 나를 채운다  
사방을 에워싸는 하느님의 체온,  
땅까지 내려오는 겸손한 무너짐,  
눈 내리는 아침은 회고 따뜻하다

- 마종기

찬 양	.....	새교우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다 함께:	아멘. 욕망과 무지의 잠에 빠져 지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는 예언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야할 길을 바로 보며 살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사람책 김대근 / 정현모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 전도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권하영 선생
	김기석 목사	안길상 권사	조문규 권사

12월	영접위원	한완식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혜정

## 눈으로 화신化身한 하느님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더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 설국이네! 털장화를 꺼내어 신고 마당으로 나갔더니 쌓인 눈에 발목까지 푹푹 빠집니다. 20센티미터쯤 될까요. 밤새 그렇게 내리고도 눈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더러움으로 얼룩진 대지를 백색 군단이 평정해버린 세상. 나는 괜히 눈덩이를 뭉쳐 굴리고 싶어집니다. 어린 시절, 돈을 받고 팔 것도 아니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뭉치고 굴러 빛던 눈사람!

그렇다고 다 큰 어른이 눈사람을 빗자니 어쩐지 쑥스러워 하늘을 향해 혀끝이나 쪽 내밀어봅니다. 빨간 혀에 닿는 눈송이의 촉감이 신선합니다. 대문을 열고 마을길로 나가니 개들과 아이들이 온통 제 세상을 만난 듯 천방지축 눈길 위를 경중경중 뛰어다닙니다. 우주가 자기들을 알아준다고 여겨 저리 신바람이 난 것일까요. 닳은 것들은 서로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천진하고 순수한 눈과 개와 아이들. 이 틈에 하느님과 시인도 끼워넣을 수 있을까요.

사물들 가운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겨울날 소리 없이 내리는 눈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구름의 아름다움은 머물지 않는 데 있으며, 달의 아름다움은 등글었다 이지러졌다하는 데 있으며, 눈의 아름다움은 잘 쌓이는 데 있다고 옛사람은 말했지요. 어떤 시인은 황홀한 설경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말을 트자’고 했는데, 눈 오는 날 미사를 드리던 마중기 시인도 하느님과 말을 트고 싶었던 것일까요. 천상에서 내리는 눈을 맞던 시인은 눈이라는 결정체로 화신化身한 하느님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노래합니다. 그 하느님이 ‘흰 옷 입은’ 성부와 ‘순한 입김’의 성자와 아지는 느껴지다 말다 하지만 ‘혼’으로 섞여 내리는 성령으로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요컨대 눈의 형상을 입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시인 안의 동심을 자극하며 소복소복 쌓인다고. 그렇습니다. 시인의 내면에 동심의 맥박이 쿵쿵 뛰지 않는다면 이처럼 딱딱한 교리의 옷을 벗어버린 하느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옥타비오 파스는 시를 두고 ‘이 세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다른 세

계를 드러내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눈 오는 날 미사를 보는 시인이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 즉 ‘하느님의 혼’과 서늘한 교감을 나누는 풍경을 경건한 서정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형의 물인 눈을 매개로 하느님의 혼과 교감하는 이 시는 정말이지 아름답습니다. 그 교감이 우리 가슴에서 상실된 존재의 원천인 하느님의 체온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마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종교인이라는 이들조차 하느님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겉으로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자본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욕으로 꽉 찬 마음에 하느님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시인은 다릅니다. 도타운 신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스러움에 접촉할 수 있는 민감한 감성 때문일까요. 오래 비어있던 나를 하느님의 체온이 사방에서 둘러싼다고 노래합니다. ... 쉽게 표현하자면, 높이 계신 하느님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매튜 폭스는 겸손에 대해 ‘신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라고 은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겸손의 본보기는 하늘하늘 내리는 눈송이와도 같은 ‘순한 입김’을 지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땅까지 내려오는 겸손한 무너짐’이라는 시구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를 먹으라”하고 말씀하신 분. 세상의 어미들이 자식에게 제 몸을 내어주듯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행간에 함축한 이 시는 성스러운 사랑의 진풍경에 다름 아닙니다. ‘눈 오는 날의 미사’의 의미는 곧 이것이 아닐까요. ...

눈 내리는 아침,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시인이 겨우 토해낸 몇 마디는 세간에서 오고 가는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희디흰 순결과 경이, 침묵과 성스러움을 무량무량 낭비하는 하늘을 보며 빈 내 가심이 한없이 부요해짐을 느끼고, 마치 우주와 내가 한 몸인 듯 여겨지니 말입니다. ‘흰 옷 입은 하느님’이 누설하는 사랑의 신비가 정말 희고 따뜻합니다.